

“엑스포 외에 시민행복 챙기는 정책도 필요”

부산시의회 김태호 의원

35~55세 ‘끼인세대’ 지원조례안 청년·노인예산 집중돼 되려 소외 내년 세수 감소, 예산배분 잘해야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독특한’ 조례가 발의됐다. 바로 ‘끼인세대 지원조례안’이다. 여기서 ‘끼인세대’는 35~55세대. 우리 사회 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은 어쩌다 ‘끼인’ 신세가 되었을까. 조례를 발의한 김태호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8월 시의회 입성 후 처음 했던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밀었다. 당시 원고 첫 문장은 ‘4년 전 저는 30대 실직자였습니다’이다.

“저도 40대이고, 30대에는 실제 상태로 도서관에 앉아있고 있어서 이 세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들어온 후 부산시 예산을 들여다보니 청년·노인에 집중돼 있고 오히려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5~55세는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시에 전달할 창구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끼인세대 조례의 시작이 된 거죠.”



김태호 부산시의원이 끼인세대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김 의원의 이런 고민은 그리 평탄하지 않은 이력에서 시작했다. 20대에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지만, 20대 초반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인연이 닿으면서 보좌관으로 다시 국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지난해 해운대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됐다.

국회 부산시 부산시의회를 두루 경험한 그에게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이나 묻자 “행정기관과 입법 기관의 균형점을 찾는 데 유리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은 시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소속인 만큼 시민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방향성을 찾아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제

로 귀를 기울여보자는 것. “지금 시정은 엑스포처럼 미래까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들의 행복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로 몰려나는 원주민, 임대주택 거주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시정이 비전문 제시하면 소외된 사람은 누가 챙기나요. 엑스포에 쏟려있는 시의 눈높이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의회 2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내년엔 시 세입이 줄어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덕신공항, 엑스포, 신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잘 듣고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명함 한 면에 크게 새겨진 문구다.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일단 들어야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시와 의회에 잘 전달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K워터 부울경지역협력단 이주민 가정에 생필품 전달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단장 김호성)은 20일 한가위를 맞아 경남이주민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이주민 가정에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사진)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경남 지역 14개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건강검진, 모금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번 후원원은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한 것으로 쌀 라면 등을 구매해 30여 가구의 이주민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호성 단장은 “이번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고향을 멀리 떠나온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인사

- ◇ 부산고검
 - ▷ 인권보호관 정재훈 ▷ 검사 박용호 조용한 천기홍 ▷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 ▷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
- ◇ 부산지검
 - ▷ 제1차장 박상진 ▷ 제2차장 안동완 ▷ 인권보호관 김지환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노상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 이영화 하재무 ▷ 인권보호부장 유진승 ▷ 형사1부장 김도연 ▷ 형사2부장 정유리 ▷ 형사3부장 서효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 공공·국제범죄조사부장 김형원 ▷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 ▷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 공판부장 김상준 ▷ 부부장 김창수(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윤근 김미은 이태협(국무조정실 파견) 장대규(금융위원회 파견) 이주희 이지영(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홍정연 황선호(헌법재판소 파견) ▷ 검사 박상선 황두평
- ◇ 부산동부지청
 - ▷ 지정장 김형수 ▷ 차장 차범준 ▷ 인권보호관 원형문 ▷ 형사1부장 송영민 ▷ 형사2부장 김정옥 ▷ 형사3부장 나희석 ▷ 부부장 이근정(환경부 파견) 조성윤 ▷ 검사 박민지
- ◇ 부산서부지청
 - ▷ 지정장 이덕진 ▷ 차장 한기식 ▷ 인권보호관 황보현희 ▷ 형사1부장 장형수 ▷ 형사2부장 전현주 ▷ 형사3부장 장옥환 ▷ 부부장 김장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미량 김희영

SCI서울보증 부산경남본부, 학대아동 환경개선사업에 기부

SCI서울보증 부산경남본부(본부장 김남필)는 지난 19일 새롬아동센터(원장 이승석)에 학대아동 보호기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사진)했다고 20일 밝혔다.

SCI서울보증이 전달한 기부금은 심리적 불안 및 행동장애를 동반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 공간을 마련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필 SCI서울보증 부산경남본부장은 “아이들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석 새롬아동센터 원장은 “SCI서울보증 부산경남본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동 환경을 위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과 상생 활동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대성문 채창호 대표, 부산진구 화재피해 아동에 후원

주대성문(대표이사 채창호)은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산본부장 노희현)을 통해 최근 아파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부산진구 화재피해가정 아동에 1000만 원을 긴급지원하는 전달식(사진)을 부산진구청에서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 와 초록우산 노희현 부산본부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했다. 최근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고 큰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에 긴급지원 후원금 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게 된다.

채창호 대표이사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야 할 시기에 화재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너무 안타까웠다. 화재로 다친 아이와 한국말이 서툰 임마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남은 가족 모두 상처가 클텐데 부모 마음



도 일본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채 대표이사는 최근 초록우산을 통해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2명을 인턴십으로 채용했다. 이를 통해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자립준비

송국클럽하우스, 051영화제 상금 이웃돕기

정신장애인재활시설 송국클럽하우스(소장 유숙)는 지난 18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부산사랑의열매)에 ‘051영화제’에 참여해 받은 상금 전액 109만4400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사진)했다.

송국클럽하우스는 지난달 7일 진행된 ‘051영화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051영화제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송국클럽하우스가 제작한 단편영화에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김민철 회원이 신스틸러상을 수상하며 송국클럽하우스는 2관왕에 올랐다. 우수상을 받은 송국클럽하우스는 100만 원, 신스틸러상을 받은 김민철 회원은 2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아 상금 증세



금증 제외한 전액을 부산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들은 이번 영화제에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5분 1초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지 기자

김현택 부산시물산업협회 회장 ‘깨끗한 수도물 공급’ 시장 표창

김현택(사진) 부산시물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부산시가 후원하고 환경타임즈, 환경방송이 공동 주최한 ‘2023년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 행사에서 깨끗한 수도물 공급과 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박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하이클로 대표이사로 국내 수(水) 처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물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에 기후테크 물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최영지 기자

제보전화 : (051)500-5145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부산 사상구 주례1동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밀치아몬드 볶음 등을 취약계층 35세대에 전달하며 밀반찬 나눔을 펼쳤다.



부산 영도구 동삼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안혜숙)는 지난 18일 청송농원이 후원한 백숙으로 사랑의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강종걸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부산 남구 용호4동(동장 김희정)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등 11개 단체 및 휴마트 등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한 쌀 119포(10kg) 전달식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산하 기관과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부산지역 4개 숙련기술단체는 지난 19일 영진봉합사회복지관에서 재능기부를 했다.



재부경남항우연합회(회장 유덕규)는 지난 18일 금정구 부산CC에서 300여 명의 회원과 제2회 재부경남항우연합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는 지난 18일 (주)엔씨베이커리(대표 정호연)와 산학협동협약 및 조기취업협약 체결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했다.